

수술 전 눈 검사 정밀하게...의료진 노하우·검증된 의료기기 중요

건강 바로 알기 시력교정술

조용운

광주스마일안과 원장

라식이나 라섹, 요즘 유행하는 스마일라식 등 시력교정술을 통해 안경을 벗으려는 사람들은 수술을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찾아 다니며 상담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적합한 병원을 고르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다.

생애 처음으로 하는 수술일 수도 있는데 내 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과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의료 행위가 그렇듯 의사와 환자 사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환자는 정보 획득에 제약이 있다.

게다가 시력교정술을 위해 한 번이라도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디지털 정보망을 장악하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술에 관한 정보인지 광고인지 취사선택이 어려울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자들은 오로지 병원에서 제공하는 한정된 정보와 느낌만으로 병원을 고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라식·라섹 잘

상담부터 수술까지 의사가 직접 관리 굴절량·각막두께·동공크기 등 검사 환자별 특성따라 적합한 교정술 선택 업그레이드 된 레이저 장비 갖춰야

하는 안과 고르는 요령'을 알아보자.

◇수술 전 검사 정밀·업그레이드된 의료기기 구비한 곳=수술 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검사가 정밀하게 이뤄지는 안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수술 전 정확한 굴절량, 각막의 두께와 구조, 안압, 동공 크기, 눈물량, 안저촬영 등의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때 개인마다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고 어떤 시력교정술이 적합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유전자를 가진 경우 시력교정 수술이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DNA유전자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또 끊임없이 연구하고 업그레이드된 의료기기를 구비한 안과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술의 방법, 수술기기, 수술효과 등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연구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번 하는 수술인 만큼 보다 안전하



조용운 원장

게 하기 위해선 최신 레이저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안과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는 곳 선택해야=수술 집도의 경험이 우선=환자 중심 진료를 하는 안과를 선택하고 속칭 '공장형 안과'는 피해야 한다. 의사가 수술 상담도 하지 않고 상담 코드가 무작정 수술 환자만 잔뜩 잡아놓고, 수술 후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관리하는 안과는 피하는 것이 좋다.

공장형 안과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익만을 추구하며 도덕적 해이에 빠져 의료과실을 발생시키는 병원이다. 이와 달리 '환자 중심 진료를 하는 안과'는 동일한 의사 한 명이 상담부터 수술, 수술 후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안과이다. 당연히 수술할 의사가 수술 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병원은 규모보다는 의사의 정성과 실력이 우선이다.

의사의 수술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라식은 레이



광주스마일안과 조용운 원장이 운동을 위해 안경을 벗으려는 직장인을 상대로 수술하고 있다.

〈광주스마일안과 제공〉

저 기계를 이용해 수술하지만, 그 수술은 결국 의사의 경험과 의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과 의사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험 많은 의사가 검증된 장비로 하는 수술은 그 결과를 기대할 만하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전남대병원, 한·영 협력 스텐트 개발 세미나

국내외 심장학·의생명공학 전문가·기업 50여명 참석 정보 교류

전남대병원(병원장 정 신)이 지난 8일 오후 4~6시50분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영국 런던대학교와 함께 한·영 협력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

한·영 협력세미나는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며, 광주보훈병원 정명호 교수(전 전남대병원 교수), 전남대병원 세포재생연구센터장 안영근 교수, 한국심혈관스텐트연구소 소장 홍영준 교수,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김주한·심두선 교수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John Martin 교수, 런던 퀸메리대학교 Anthony Mathur 교수가 주도해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미국 예일대학교, 영국 Valiance Advisors LLP 의료기기 전문기업, 전남대학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전북대학교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한국의 의료기기 전문기업 시지바이오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한·영 협력세미나에서는 기존 금속 스텐트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생체 내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분해되어 흡수되는 생분해 심혈관스텐트에 대해 논의했다. 또 무선 압력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혈압 모니터링 및 AI 기반 SMART 테크놀로지 기술의 심장질환 적용을 주제로 임상의, 과학자,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orea-UK Collaborative Seminar 2

SMART technologies in cardiovascular disease

2024. 5. 8.(수) 16:00~18:50 장소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과 앞으로 발전할 미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행사에서 정명호 교수, 안영근 교수, 전남

대 이동원 교수, John Martin 교수, Anthony Mathur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조선대병원,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 보고회

조선대병원(병원장 김진호)이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섰다. 조선대병원은 최근 병원 국제사업센터 교육실에서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조선대병원은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2023 권역 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해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범사업 후 구성된 실무협의체인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외 7개소 및 참여병원 15개소 등에서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사업 주요 내용으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으로 질병대응센터 구축,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 권역 특성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수립·운영 등을 발표했다.

윤나라 사업단장(조선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다행이다"며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인 발전 및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광주보훈병원, 다빈치 로봇수술 100례 돌파

도입 5개월만...전립선암·신장암·신우요관암 등 다양한 분야 활용

광주보훈병원(병원장 이삼용)은 최근 2024년 다빈치 Xi를 이용한 로봇 수술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최단기간인 도입 5개월 만에 수술 1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광주보훈병원은 2022년 11월 늘어나는 고령의 비뇨기질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호남권 최초로

비뇨의학과에 전립선·로봇 센터(센터장 전상준)를 개소했으며, 비뇨기과 암의 최신 치료를 위해 지난해 10월 복권기금 23억원을 활용해 최신 로봇 수술기 '다빈치Xi'를 도입해 지방보훈병원 최초로 '로봇수술' 시대를 열었다.

다빈치 Xi는 전립선암, 신장암, 신우요관암, 중

증의 전립선비대증 수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최신 로봇 수술기이다. 특히 대표적 로봇수술인 '로봇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은 일반 수술에 비해 정교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해 종양 제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신경 및 혈관 보존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수술 후 출혈, 요실금, 발기부전 등 합병증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춰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광주보훈병원 전립선·로봇 센터는 로봇수술 이외에도 연간 전립선암 수술 200례, 전립선비

대증 홀몸레이저 수술을 전국 보훈병원 최초로 1500례를 돌파하는 등 전립선 질환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최신 장비를 보유하여 국가유공자와 지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삼용 병원장은 "로봇 수술을 통해 통증과 수술 부작용을 줄임으로써 환자분들이 빠르게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추후 전립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에서도 로봇 수술을 실시해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